

# ‘5공 전사’에 도청 진압작전 보안사 주도 정황

**5·18 37주년**  
**3대 의혹 이번엔 밝혀야**  
**발포명령자**

5·18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의 명령자는 누구인가. 5·18 당시 전일발포에 자행된 헬기 기총소사의 명령자는 누구인가. 20년 전 대법원 판결에 의해 광주학살이라는 내란의 수괴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판명됐다.

도청 앞 집단발포와 헬기사격 명령자로 세상은 전두환을 지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지만 그는 회고록까지 써가며 발포명령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광주와 나는 관계가 없다’고 감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금 ‘전두환과 광주 그리고 발포명령자는 다름 아닌 전두환’이라는 물증을 찾아내 그를 다시 한 번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진실 규명은 역설적이게도 80년 5월을 전후로 전두환의 행적과 발언, 각종 기록물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당시 전두환의 수족이 돼 광주학살을 저지른 신군부 핵심인물들이 70~80대의 고령이던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조사도 재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軍) 간부들 “전두환 5·18 당시 광

“전두환 광주 왔다...자위력 결정에 곧 사살명령 내릴 것” 증언

대법원도 ‘학살 수괴 전두환’...물증 찾아 역사 심판대 세워야

주 왔다”=우리 국민에게 잊혀져가고 있지만 “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이자 군부 실권자)이 5·18 당시 광주에 왔다”고 발언한 군 관계자는 한 둘이 아니다.

5·18 당시 2군사령관 진중재 장군은 지난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이부영 검사실에서 “날짜와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5월 18일에서 27일 사이 전두환 노태우 등이 광주 비행장에 따로 따로 내려와서 전교사 사령관, 505보안부대장을 만나고 갔다는 사실을 2군사령부 참모부에서 보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5·18 당시 전교사 작전참모 백남이 대령은 전두환 광주 방문과 관련된 더 세밀한 진술을 검찰에서 한다. 백남이는 검찰 조사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노태우 수경사령관이 광주에 방문했다”면서 “1980년 5월 26일 오전 10시30분~11시경 광주 공군 비행장에 전두환 사령관이 와 있는데, (전교)사령부(계엄사 광주전남분소)에도 같이 모르니 왕래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연락을 비행장 상황실 근무자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소준열 당시 전교사령관이 직접 비행장으로 가 전두환을 만난 것 같으며, 노태우 사령관의 경우 직접 전교사 사령부

북도에서 마주친 적도 있다”고 검찰에 밝히기까지 했다. 광주505보안부대 수사관 출신 허장환은 “서의남 중령(505보안부대 대공과장)이 ‘오늘 (전두환)사령관님께서 광주를 다녀가셨고 전교사 회의 결과 역시 자위력 구사를 최종 결정했으니 폭도들에게 곧 사살명령이 내려질 것이다. ‘모든 문제는 사령관님이 책임진다’는 발언을 들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아 책을 펴내고 양심선언하기도 했다.

◇‘도청진압작전도 보안사가 주도’=도청 앞 집단 발포 뿐 아니라 도청진압작전에도 전두환의 명령이라는 정황은 차고도 넘친다. 대법원이 “작전명령에는 발포명령이 포함돼 있다. 살상의사가 분명히 포함돼 있다”고 판단한 1980년 5월 27일 도청진압작전 역시 전두환이 연루돼 있음이 드러난다.

보안사가 퍼낸 제5공화국전사를 보면, 도청 진압작전 계획 수립에 전두환이 수장으로 있는 보안사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이 드러난다. 제4편 제4공화국과 정국의 미로 훈미 중 ‘상무총장직전’ 부분에는 “정장군(보안사 정도영 보안처장)은 이장군(육본 작전처장 이종구)에게 자기의 동감(부력

소량계획)을 전하고 국방부 보안부대장 백재구 대령에게 지시하여 국방장관에게 조기 무력진압을 조연도록 하였다”고 적었다. 같은 책에는 “이와 같은 광주무력진압계획은 5월 25일 육군총장을 통해 국방장관에게 건의됐다. 국방장관 주영복 장관은 1, 2, 3 사령관, 특전사령관, 보안사 참모장 등을 소집, 육군계획을 토의했다”고 적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전은 실행됐다. 수필과 토의 등 작전 전반에 전두환이 사령관으로 있던 보안사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

국방부가 지난 2007년 펴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에서도 발포명령자를 전두환으로 강하게 추정하는 대목이 나온다. 과거사위는 2군사령관 진중재 행적과 작전지침이 담긴 문서에서 (도청 앞 집단발포가 있던 1980년 5월 21일)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린 국방장관실에서 전두환이 자위권 발동을 강조했다는 수기를 확보했다. 당시 문서에는 “장관 주영복, 총장 이희성, 사령관 진중재, 수경사령관 노태우, 특전사령관 정호용, 합동 수사본부장 전두환...전 각하(전두환) : 초병에게 난동 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적었다.

“제5공화국 전사”에서도 전두환이 국방장관실에서 열린 자위권 발동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담고 있다. 5공전사에는 회의의 시간은 언급돼 있지 않다. /김형호기자 khh@

5·18...37년전 오늘 어떤 일이

비상계엄 전국 확대...공수부대 전남대·조선대 점령

1980년 5월 17일 광주는 조용했다. 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사흘간의 민족민주화성회와 가두시위를 마치고, 이날은 휴식에 들어갔다. 반대로 신군부는 분주했다. 오전 10시 국방부에서는 계엄사 전군주요지휘관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 ▲각급학교 휴교 ▲국회 해산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 설치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오후 9시40분 임시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 확대 선포안이 의결됐다. 그리고 이날 밤 자정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신군부는 자정을 기해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대도시에 신속히 군대를 투입했다. 특히, 서울과 광주는 주요 공격 목표였다. 서울에는 1·3·5·9·11·13공수여단, 광주에는 7공수여단 33·35대대가 배치됐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이들 공수부대에 의해 점령됐다. 비극의 시작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5·18 전야제 ‘세월과 오월’ 함께한다

백남기 농민 유족도 참여

진상규명 촉구 연대활동

시민 1만명 이상 참여할 듯

세월호 유족과 백남기 농민 유족들이 제37주년 5·18민중항쟁 전야제에 참석해 광주시민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연대활동을 한다.

제37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17일 광주 금남로 일원에서 열리는 전야제 행사에 세월호 유가족이 참석해 5·18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연대활동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5·18행사위는 이날 행사에 전년보다 5000여명 많은 1만명 이상의 시민이 함께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과 목포 신항에서 광주로 모인 세월호 유가족 40여명은 이날 광주로 발걸음을 옮겨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민주대행진에 참여한다. 행진은 광주 북구 유등사거리를 출발해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 본무대를 행진하는 코스다.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가족대표로 전야제 본행사 유가족 발

언 순서에 무대에 올라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다. 세월호 유가족과 5·18 유가족은 세월호 참사 발생 1년여 만인 지난 2015년 5·18 전야제 행사에 함께 만나 ‘진상규명’을 함께 호소하며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백남기 농민 가족도 무대에 올라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5·18발포명령자와 헬기사격 전도, 행방불명자 매몰지 규명을 촉구하는 5·18유가족도 자리에 올라 진실규명에 함께 나서자고 호소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진행되는 전야행사는 부대행사와 분행사도 나뉜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위험한 핵발전 중심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광주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알리고 강을 복원하자는 염원을 담아 사진전을 연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전야제의 사회는 촛불집회 사회자로 유명한 백규림 씨와 지정남씨가 맡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5·18 새 비밀 밝혀질까

미국 언론인 팀 셔록

24일 기밀문서 연구 결과 발표

1980년 5·18 당시 미국 정부와 전두환 신군부간 비밀 통신기록 이른바 ‘레코키 파일’을 폭로한 미국 언론인 팀 셔록(66)이 오는 24일 광주에서 ‘5·18 기밀문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셔록은 24일 오전 11시 광주 금남로 5·18민중항쟁기록관에서 올 초 광주시에 기증한 3530쪽 분량 59개 기밀문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가 기증, 분석한 자료에는 1979~1980년 당시 미국 국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이 주고받은 전문, 미 국방부 및 중앙정보국 기밀문서가 포함됐다.

지난달부터 광주에 머문 셔록은 5·18 관련 미국 정부 기밀문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사건 일자 및 시간대별 분류·정리 등 분석작업을 벌여왔다(광주일보 4월 3일자 5면). 셔록은 연구 작업 결과 발표와 더불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할 예정이다. 셔록은 5·18 당시 미 국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고받은 비밀정보를 1996년 공개해 숨겨졌던 진실을 규명하고 미국 정부의 역할도 밝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16일 학생들이 전남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열린 ‘오월 사진전’을 찾아 전시된 사진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이번 사진전은 ‘오월이 뭐시데? 아 있나 오월사진전’이란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오월이 뭐시데?’ 사진전·워킹투어·미니영화제

들불열사기념사업회가 5·18일을 맞아 광주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오월이 뭐시데?’라는 주제로 행사를 펼친다.

우선, 1980년 5월 18일부터 2017년 5월 18일까지 37년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오월사진전이 전남대학교 도서관 앞과 조선대학교 예술대학 앞에서 열렸다.

사진은 지난 15일부터 전시되고 있으며 19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오는 18일에는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전남대학교 일대를 걸으며 5월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워킹투어도 마련됐다. 투어는 이날 낮 12시와 오후 3시 두차례 진행된다. /전문재기자 ej6621@kwangju.co.kr

오는 22일과 23일 오후 7시에 열리는 미니영화제에서는 세계침공을 주제로 한 영화 ‘다음 침공은 어디?’가 상영된다. 전남대학교 봉지와 조선대학교 미대 앞에서 열리는 영화제가 끝난 후에는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진다. 또, 지난 15일부터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제29회 오월전 ‘비틀린세상, 억눌린 일상-왜곡’ 전시회가 진행중이다. /전문재기자 ej6621@kwangju.co.kr

## “왜 해고하냐”...판소리 연구소 찾아가 행패 부린 ‘고수’

“...‘왜 해고하냐’며 자신이 일하던 판소리 연구소에 찾아가 행패 부린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1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25)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55분께 광주시 북구 동림동의 판소리 연구소에 찾아가 소장인 박모(여·40)씨의 머리채

를 잡아 흔드는 등 폭력행위. ○...이씨는 박씨가 운영하는 판소리 연구소에서 북을 치는 고수로 약 2년간 일했는데, 경찰은 “이씨와 사이가 안 좋아진 박씨가 ‘이제 그만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난 이씨가 불만을 품고 찾아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 같다”고 설명. /전문재기자 ej6621@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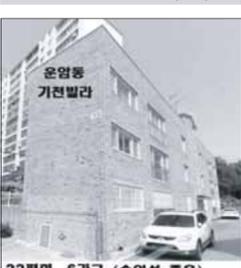
#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700,000,000**

<p><b>장성 서산면 승현리 (공장)</b></p>  <p>대지 1361평 건물 372평</p> <p>최저가 657,000,000 감정가 938,000,000</p>	<p><b>동구 대인동 근린주택 (4층건물)</b></p>  <p>토지 128평 건물 250평</p> <p>최저가 885,000,000 최고가 885,000,000</p>	<p><b>나주 문평면 옥당리, 둔사</b></p>  <p>토지 1417평 건물 484평</p> <p>최저가 224,000,000 최고가 321,000,000</p>	<p><b>화순 도곡면 천암리 (숙박시설)</b></p>  <p>대지 978평 건물 1294평</p> <p>최저가 993,000,000 최고가 3,788,000,000</p>
<p><b>서구 화정동 원릉(화정역인근)</b></p>  <p>토지 94평 대지 157평</p> <p>최저가 549,000,000 감정가 784,000,000</p>	<p><b>동구 금남로3가 근린시설</b></p>  <p>토지 118평 건물 305평</p> <p>최저가 742,000,000 감정가 1,059,000,000</p>	<p><b>운림동 기전빌라</b></p>  <p>22평형 6가구 (수익성 좋음)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자 6,000만원 월세45만원</p>	<p><b>제일오피스텔 29층</b></p>  <p>감정가격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p>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